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어서 3월 25일(월)~30일(토)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3월 25일(월)~29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가집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오늘 점심은 차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4. 다음 주일은 '부활절(復活節)'로 지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3월 24일	3월 31일	4월 7일	4월 14일
예배기도(2부)	신태식 장로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윤형근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차미자 집사 가정	가정의 주일	황희용 권사 가정	김경미 권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박노영 집사, 오진석 집사)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힘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은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종려주일) 다같이
*경배찬송	70장(통 79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79장(통 40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신택식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막 6:49-52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무더진 마음 바로 잡기'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302장(통 408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전희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박일선 전도사	다같이
여는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눅 19:28-40	김전희 목사
말씀선포	'돌들이 찬양하리라'	김전희 목사
기도		김전희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송	353장	다같이
축도		김전희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6:13-20 '나의 고백'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막바지 추위가 봄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인지 한껏 기승을 부리다가는 슬그머니 꼬리를 말았습니다. 절기 상 춘분을 막 지났습니다. 거기다 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비도 내렸습니다. 24절기의 넷째 절기인 춘분은 이 절기를 전후하여 철 이른 화초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화단의 흙을 일구어 며칠 남지 않은 식목일을 위하여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는 겨우내 간헐던 것, 맺혔던 것이 새롭게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네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한 금남리 한 가정집 한쪽에는 산수유나무가 벌써 노란색 꽃망울을 머금고 활짝 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해 허둥거리게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자기 실존을 문제 삼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은 고단한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모든 동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 '왜?' 라는 질문은 오직 인간만이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삶은 탄실해지게 마련입니다. 사실 열심히 바쁘게 산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물론 그 바쁘다는 삶의 방향이 자아(自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시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다면 한낱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삶은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계절이 가져다주는 은총의 열매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면 간헐던 것, 맺혔던 것이 훨씬 더 많이 풀릴 것입니다. 여기엔 이유 없이 달리는 삶의 방향에 새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선물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처럼 갑작스런 날씨의 변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서있는 나무들처럼, 머지않은 그 날에 아름답고 영롱한 자태를 선사하는 상록수들이나 누런 풀잎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자연을 보며,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없이 외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계절의 순환 속에서 자기 삶을 그토록 잘 파악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더 이상 우쭐거릴 것도 없고, 가진 게 없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겨울이 비껴나고 있는 이즈음 길을 잃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마땅히 마음 둘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마땅히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지,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Written by 허영진